

사람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물려받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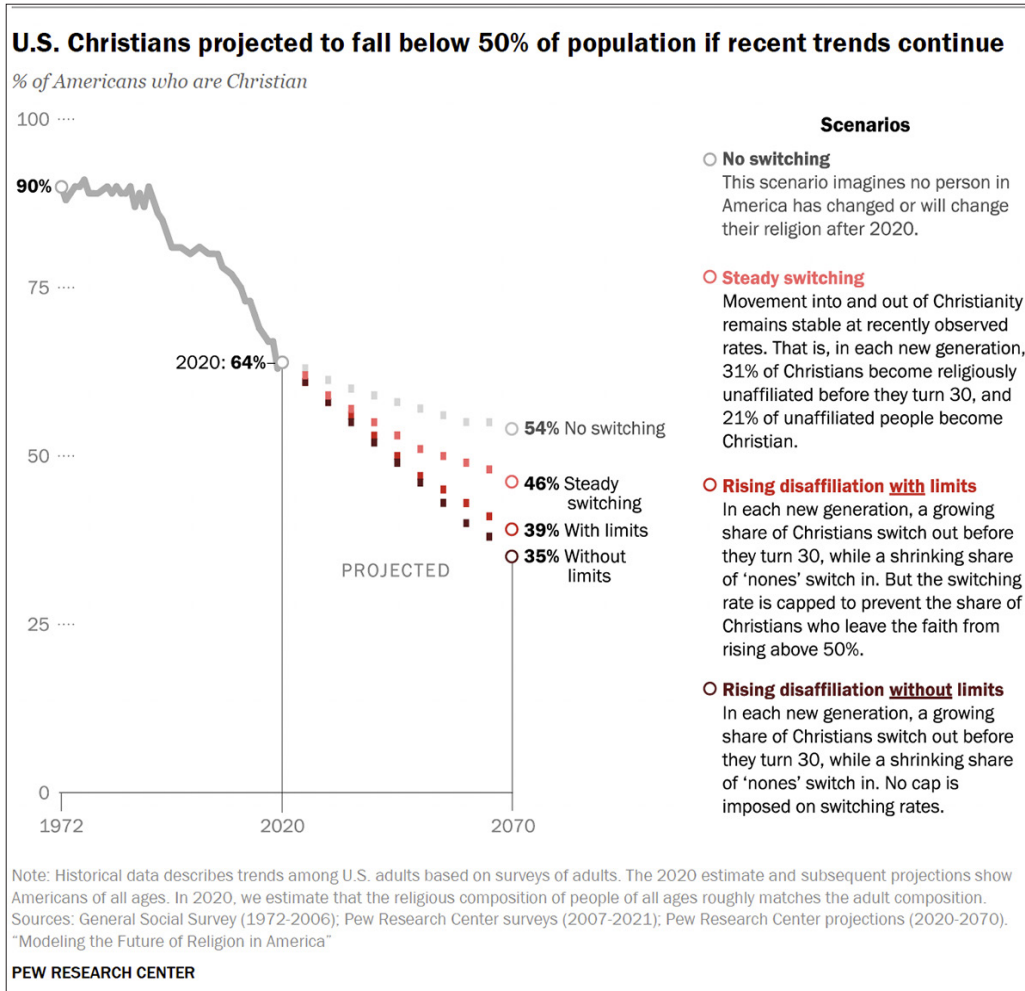
종교 전환(Switching)으로 이탈하는 젊은 세대를 잡아... 퓨리서치, 현재 추세로 '전환변경' 계속되면 기독교 인구 2070년에는 50% 이하 감소할 수 있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64%에서 2070년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한 것이 없는(Nothing in Particular)'의 무종교인으로 전향하면서 1990년대 이후 종교지형이 재편된다는 분석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와 제너럴 소셜 서베이(General Social Survey, GSS)가 13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 기독교인의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인들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한 것이 없는(Nothing in Particular)'의 무종교인으로 전향하면서 1990년대 이후 종교지형이 재편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미국인의 약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독교인은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에 무관심한 무교층은 2007년 16%에서 2020년 3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교는 2020년 약 6%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독교인들의 종교 전향 추세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종교적 차이, 이주 패턴, 출생, 사망률을 포함한 기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가 향후 반세기 동안 종교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



퓨리서치는 '완만한 속도로 교체', '제한은 있지만 탈퇴인구 증가', '제한없이 탈퇴인구 증가', '탈퇴인구 없음' 등의 4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기독교 인구 감소 추세를 예상했다. 이중 '완만한 속도로 기독교 인구의 교체가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경에는 최대 종교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2070년에 46%)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적지만, 탈퇴 비율(41%)이 증가하고, 다른 종교 비율이 13%로 증가하면서 결국 인구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고 봤다.

'일정정도 제한을 둔 탈퇴 증가'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경에 기독교 인구는 39%까지 감소하면서, 탈퇴하는 기독교인(48%)이 현존하는 기독교인

구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고 봤다. '일정정도 제한을 둔 탈퇴 증가'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경에 기독교 인구는 39%까지 감소하면서, 탈퇴하는 기독교인(48%)이 현존하는 기독교인



윌리엄 루토 대통령, 기독교 국정 운영 중심에 둔다 BBC, 종교 중심 국정 운영... 케냐의 새 대통령은 누구인가 보도

케냐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윌리엄 루토는 케냐 최초의 복음주의 기독교 대통령이다. 종교가 그의 선거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향후 재임 기간 동안 종교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William Ruto: How Kenya's new president is influenced by religion).

55세인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동성애자 권리와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루토 대통령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기도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흐느끼기도 했다.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은 그를 향해 "대리 예수"라고 조롱했다.

지난달 치러진 케냐 대선과 관련해 현지 대법원은 루토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 루토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무릎을 꿇고 현장에 있던 아내 레이철 및

를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루토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수도 나이로비의 카렌 교의 거주지에 예배당을 짓기도 했다.

루토 대통령의 강한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한 이슬람 지도자는 판결 직후 기도하면서, 루토 대통령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들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케냐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루토 신임 대통령은 많은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영렬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승남 선교사
4면

평신도를 위한 조진학
이길호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을 목상하며
말씀을 목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제5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2022 5TH WORLD MISSION CONFERENCE

중단없는 선교

God's Mission Never Stops

저녁 집회
10월 5일 수 | 류영렬 목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10월 6일 목 | 최종상 선교사 (AMNOS Ministries)
10월 7일 금 | 호성기 목사 (필라디모교회/PGM 국제대표)

선교세미나
10.6 THU
호성기 목사 (필라디모교회 PGM 국제대표), 김영민 선교사 (PGM 한국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조영태 선교사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김은범 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부이사장), 고훈 목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설대역 목사 (살렘제일장로교회)
10.7 FRI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PGM 제4대 이사장), 양충언 목사 (안디옥 스페니쉬교회 PGM 파송선교사), 고대은 목사 (안디옥 다민족열방교회 PGM 파송선교사), 이상현 목사 (말리안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한인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조재언 목사 (한마음 RTP교회)

선교세미나와 더불어 PGM 선교사님들의 선교전략 및 선교현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선교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 2022년 10월5일(수) - 7일(금) | 선교세미나 및 선교강의 오전 9시- 5시30분 | 저녁집회 오후 7시 30분
장소: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 318 Stage Coach Trail, Greensboro, NC 27409
공공: GSO 공향이용 (GSO 공향이용이 어려운 경우 RDU 공향이용) | 그 외 공향이용시 라이드 개별준비
등록비: 개인 \$300, 부부 (2인) \$500 (숙식포함) | 지역등록 \$100 (식대포함)
문의: PGM 국제본부 admin@pgmusa.org | 610-397-0484

QR 코드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발행인 칼럼

결핍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김성국 목사 (권장장교회 담임)

결핍의 문제는 심각하다. 온 세상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애정의 결핍은 많은 문제를 자아낸다. 최근에 한국으로부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한 여성의 소식이다. 그를 스톱킹 했던 사람이 무참히 살해했다. 스톱킹을 자행하는 사람은 길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애정결핍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인 폭력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이번 사건처럼 끔찍한 살인으로 끝을 내는 경우도 적잖이 있다. 포르노 중독도 애정결핍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준다. 애정결핍의 처절한 고통이 뒤따라 만들어 낸 수치스러운 중독이 포르노 중독인 것

이다. 수많은 상처도 애정결핍에서 오곤 한다. 주말이면 학교 다니는 많은 자녀들이 운동 등 무슨 특별활동에 참여한다. 그런데 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참관하는데 소홀히 하면 그 자녀들이 소외감이라는 상처를 갖는다. 부모의 애정결핍으로부터 온 상처가 아니겠는가.

자원의 결핍은 어떤가. 자원 결핍은 재앙이다. 천연 가스라는 자원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보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막자 이것을 받아 사용하던 유럽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자원 외교, 자원 전쟁은 국가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펼친 자원 외교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사실 그 반대는 경제성을 앞세웠지만, 정치적 요소가 농후했다. 자원 외교는 길게 바라보면서 평가해야 한다. 그 때에 투자해서 비난받던 호주 프렐류드(Prelude) 가스전이 요즘 한국 내에 도입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다소 위험성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자원의 결핍이 주는 폐해가 상상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의 결핍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원의 결핍이 국가적 결핍이라면 돈의 결핍은 개인적 결핍을 지칭한다. 재정의 결핍은 누구나 호소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어 부자들 대부분도 돈의 결핍증을 보인다. 온 세상에 만연한 성공 지향적인 삶은 돈의 갈증을 풀나게 해결하려는 뚜렷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맘몬이즘이 왜 생겼는가. 돈의 결핍은 인생의 실패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각 나라에서 수시로 울려 퍼지는 경제침체의 소식은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할 정도의 우울증 환자를 함께 양산해 낸다.

결핍의 시대에 결핍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 모든 결핍을 이길 수 있는 세속적인 방법은 자꾸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모순이다. 채울 것이 없어 결핍이었는데 무엇으로 채우란 말인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무슨 만족이 있겠는가. 채움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책이 따로 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소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비교하면 끝까지 만족할 수 없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 있는 나 자신 그대로 만족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소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결핍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이 그랬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 이런 고백 앞에 버티고 서 있을 결핍은 없다. 다윗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잊지 말자. 지독한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넘치게 풍요한 자인 것을.

‘강제 노동, 강제 결혼’, 현대판 노예 급증

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강제노동/결혼으로 고통받는 인구 5년 전보다 1,000만 명 증가

무력 충돌, 기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현대판 노예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새로운 유엔(UN) 보고서가 나왔다.

UN의 노동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이나 결혼 등으로 고통받는 인구 규모를 약 5000만 명으로 추산했다(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이는 인구 150명당 한 명꼴로, 5년 전보다 100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ILO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렇듯 근본적인 인권 유린이 지속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고용주 단체, 시민 사회, 일반 시민의 역할 모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LO는 노예제가 서방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빈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든 강제 노동의 절반 이상이 중상위 및 고소득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강제노동과 강제 결혼 모두 현대판 노예제로 취급했다. 개인이 “위협, 폭력, 기만, 권력 남용 또는 여러 다른 형태의 강요”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노동의 경우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강제 결혼의 경우 대부분 종신형”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인구는 약 2760만 명이며, 이 중 330만 명이 어린이이다. 그리고 이들 어린이 중 절반 이상이 상업적 성 착취에 시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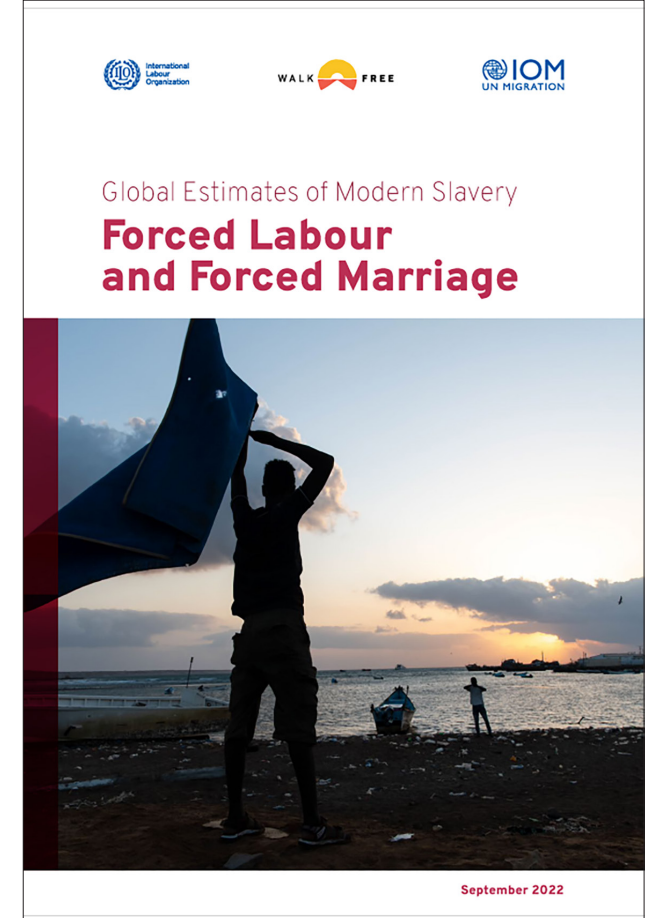
또한 강제로 결혼하는 인구는 2200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여성 피해자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가 15세 이전 결혼으로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위기가 얽힌 데 달치면서 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예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소득에 큰 차질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했다. 어떤 경우엔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ILO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극심한 세계적 빈곤”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곳곳에서 벌어



지는 전쟁과 무력 충돌 또한 끔찍한 상황 또는 소년병 모집 및 복무로 이어진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해 살던 곳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떠밀린 사람들은 즉각 더 큰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 전환(Switching)로...

〈1면에서 계속〉 이런 비율이면 2070년이 아닌 2060년경에 기독교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조사 보고서는 “만일 젊은 층의 인구들의 종교변화가 지금 추세라면, 기독교의 인구는 매 십년마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 결국 2060년경에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70년경에 단지 35%만이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는 기독교를 떠나는 인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한 결과이다.

결국, 대부분 종교변화가 일어나는 연령대인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기독교인 중 31%가, “전환(switching)”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30세 이후에 전향하는 사람들은 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2060년까지 절반 이하 수준, 2070년에는 4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무교가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슬람 등 비기독교인은

현재 인구(6%)의 두 배인 12~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퓨 리서치 센터의 애나 쉐러(Anna Schiller) 연구원은 14일 “이번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의 현재 추세를 분석하고 다양한 종교 전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예측했다”며 “종교 전향에 대한 주요 원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9%가 믿음 부족, 20%는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불만, 18%는 종교적 확신 부족으로 종교 전향을 했으며, 10%가 무신론자로 조사됐다.

동 보고서를 분석한 ‘크리

스천티티 투데이(CT)’는,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는 아니라고 짚는다(Decline of Christianity Shows No Signs of Stopping). 오히려 전쟁, 경제 불황, 기후 위기, 이민 패턴의 변화 또는 신앙생활의 혁신 등과 같은 외부 사건이 현재의 종교 전환 추세를 역전시켜 미국의 기독교 부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계삼.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선교교회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 지난 49년동안 은혜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이 기쁘고 감사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9월 25일 오전 8시, 11시. 장소: 세계선교교회 본당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담임: 김창섭 목사. 예배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8시, 주일2부예배 오전 11시, EM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시,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윌리엄 루토 대통령...

(1면에서 계속)

케냐 복음주의 동맹(Evangelical Alliance of Kenya)의 데이비드 오긴데 주교는 "루토 정부가 케냐는 종교 사회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사 쿼 대법원장조차 루토의 승리를 결정한 법원 판결을 "신의 작품"으로 언급할 정도로 케냐는 독실한 신자들의 나라다.

가톨릭 신자로서 현지 시각 13일 퇴임한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에 대한 루토의 종교적 영향력은 당시 첫 임기 동안에도 두드러졌다. 그는 2007년 선거 이후 발생한 폭력 사건 관련 혐의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 참석해 기도했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결국 검찰은 2014년 케냐타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판사는 2016년 루토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루토 대통령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됐고, 현지 언론들은 그의 젊은 시절 목회자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의 아내는 종종 기도 모임을 열었다. 루토 대통령은 아내의 이러한 영적 개입이 여러 차례 자신의 정치적 성

공에 기여했다고 했다.

그의 선거운동의 종교적 신임은 리가티 가차과 신임 부통령의 부인인 도르카스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도르카스는 전직 은행원이자 목사이다.

2019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케냐인의 약 85%가 기독교인이다. 개신교는 33%, 가톨릭은 21%, 복음주의 기독교 20%, 아프리카 기독교인 7%로 집계됐다. 2019년 마지막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11%가 이슬람교도로 나타났다. 소수의 사람들이 기타 다른 종교를 고수하지만,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치 분석가인 마카리아 무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루토 대통령이 모든 종파의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무네는 "루토의 상대 후보였던 라일라 오딩가는 '기독교가 세뇌되고 있다'고 말했다를 뿐 아니라 그의 아내 아이나는 '교회 규제'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런 발언은 투표에서 루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인 헤르만 만요라는 "루토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며 "그들이 선거운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요라는 "대니얼 아랍 모이 정권 때처럼 교회 예배가 일요일 황금시간대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루토 대통령은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토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이로비의 한 신자에게 "케냐는 신을 숭배하는 공화국이고, 케냐엔 동성애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승리 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 권리가 케냐 국민에게 큰 이슈가 된다면, 케냐 국민들이 그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요라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시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부를 위한 중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9년 케냐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뒤집으려는 활동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요라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루토는 낙태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회의 지지를 받아,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헌법 헌법 조항에 반대했다.

따라서 루토 정부가 낙태법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헌법 체계에서는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강화할 여

지는 거의 없는 상태다.

루토는 동성애자 권리와 낙태와 같은 문제에 동의하는 무슬림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수십 명의 무슬림 지도자가 있는 통합민주운동(UDM)은 오딩가의 연정을 거부하고, 의석수 확보 위해 루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이는 결국 루토 대통령이 선거 후 큰 지지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만요라는 무슬림의 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루토 대통령이 무슬림 지도자들을 발탁하며 무슬림을 달래겠지만 그가 기독교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한 일부 무슬림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긴데는 루토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정부 주요 관직에 임명한다면 모든 종교가 대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루토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확실히 기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루토 대통령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요라는 케냐의 새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기독교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 상황은 바뀐다"고 지적했다.



시론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라



류응열 목사 (야성통증양장로교회)

무성한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 따라 가을이 오는 길목에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라틴어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는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제 책상 앞에 이 글귀를 써 놓고 그 의미를 되살려보곤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백마가 이끄는 전차 뒤에 탑승한 산 사람이 장군에게 계속 이 말을 새기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매일 아침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떠올리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행복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를 드린다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루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고결하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Carpe diem,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1990년 개봉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외친 한 마디로 전 세계 젊은이를 열광하게 한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경구를 마치 성경 구절이나 되듯이 새 책을 사면 적어두곤 했습니다. 저의 시간 철학을 '하루살이'라 부르면서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한날 한날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끔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현재를 즐겨라, 또는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대로 살라는 식으로 번역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몸살을 앓곤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흘러간 물과 같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매일 순간을 가치있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향기로 풍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맡기신 사명에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오늘 하루 진정한 최선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는 Amor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말로 '운명애'라고 불립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권력의지를 통해 결코 이룰 수 없는 욕망의 샘에서 마실 물을 찾는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결국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명제에 도달합니다. 니체의 삶과 이 고백의 근거는 기독교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이 말 자체는 참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진다고 해도 모두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 앞에서 니체도 헤밍웨이도 허무로 노래했지만 신자에게는 그 연약함이 전능자의 자비를 구하는 통로이며 하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은 흐르는 물처럼 단 한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순간마다 소망이 충만하며 아직도 호흡이 있다면 사명이 있기에 의미 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야 할 사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이 창조주를 드러내는 영감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preachchrist@kcpc.org

새책소개



시인 석정희

시집 '내 사랑은'



상했으며 재미시협부회장 및 편집국장, 미주문협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집에 관한 문의는 sign7006@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강물이 숨죽여 / 바다로 잦아들 듯 / 바닷물이 조용히 / 모래톱에 스며들 듯 / 바람이 수줍게 / 나뭇가지에 안기듯 / 안개가 소리없이 / 바위산을 감싸듯 / 흰 눈이 소복소복 / 빈들에 쌓여가듯 / 사철을 따라 조금씩 / 그 힘을 키워가도 / 한밤에 돌아보면 / 혼자서 피어있는 달맞이 꽃...

은 "글은 과거의 것이지만 객관적 진실을 넘어선 주관적 진실이다. 시집에 담긴 사유와 통찰력은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코로나로 힘들었을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는 시집이 되기 바란다"고 서문을 통해 시집발간의 목적을 수록했다. 본 시집은 제 1부 '우리 애겐 꿈이 있다', 2부 '시월의 기도', 3부 '한 뭉툭 조

기에서', 4부 '내 사랑은', 5부 '어울리고 어울려서'로 구분 돼 총 9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석정희 시인은 '나 그리고 너', '강', '엄마 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의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한영시집도 출간했다. 그는 대한민국문학대상, 한국농촌문학 특별대상, 세계 시인대회 고려문학 분상 외 수많은 상을 수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학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pcchurch.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목사님 참 행복해요!

목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구제

의 손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건축하여 안정을 찾는 것 등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 되는 삶일 것이다. 그러나 나

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쁜 일이 분명하나 최고의 기쁨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 가슴이 크게 뛰는 감동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나는 건축을 하고서 뛰지 않는 내 가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오히려 우리 교회 헌당 예배 시 축하하러 온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데 반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내 가슴이 뛰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목사의 기쁨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번 주일 저녁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몇 분이 나를 보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목사

님 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움직이지 않던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속으로부터 나왔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다. 목사로서 양들인 성도들이 기도과 말씀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때야 로마 육중에서 쓴 사도바울의 말이 마음으로 이해되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1:20-26)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 그는 차라리 죽어 천국에 들어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편한 삶도 좋지만, 하루라도 본인이 더 살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기 목숨 같이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소명 받은 목사로서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사도바울의 마음으로 나의 목회 여정을 마칠 것을 다짐하여 보았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승남 선교사
(영생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직장 등에서 큰 문제, 어려움, 고난 없이 평안하게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통 형통한 삶을 말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 지역을 옮겨 가며 수십 명의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여호수아는 약 7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찰

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산간 지방의 초라한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생애를 요약하면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정복 전쟁, 땅의 분배와 정착

주시려고 했던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뜻과는 다릅니다. 이 형통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잘 풀리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여호수아서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에 성공하다” 혹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

통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사 53:1-6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은 바로 십자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가서 면류관을 쓰시고 침 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찢림 당하시고 상함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과 가죽이 찢기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마침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열구리에 창이 찢리셔서 불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자세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esn80@gmail.com

형통한 삶

여호수아 1:7-8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수 1:7-8)

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실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의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광야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고된 노동을 하던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광야 시절에 장정만 60만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살았을 때 오늘 정말 전쟁 같은 하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을 약 7년 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지휘하고 도와 주는 것을 약 18년 동안 합니

다. 여호수아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그들도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형통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형

통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사 53:1-6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은 바로 십자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가서 면류관을 쓰시고 침 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찢림 당하시고 상함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과 가죽이 찢기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마침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열구리에 창이 찢리셔서 불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자세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esn80@gmail.com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추구하고 또한 축적하기를 원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라는 말은 바로 그 힘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힘이든지 소유하기를 원한다. 어떤 종류의 힘을 원할까? 무엇보다 생존과 직결되는 건강한 육체의 힘을 원할 것이다. 또한, 이민자들의 꿈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님 돈 세다 잡들게 하소서'의 성취를 기대하는 재물의 힘을 원한다. 그리고 지식의 힘도 필요해서 자식 공부만큼은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을 본다.

이러한 힘들, 체력, 재력, 금력 등을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그 힘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해지는 힘이 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고 구했던 그 힘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움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그 한가지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빚어

복을 경험했을 터인데, 유한한 이 땅의 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지 않은가? 땅의 유한한 것에 만족하며, 영원한 가치의 복을 놓치는 인생을 '바보, 어리석은 인생'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의 금력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 앞에서도 꿈쩍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웃음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돈처럼 손에 확실히 쥐어보고야 깨달은 그의 구원은 언제일까? 지옥에 가서야, 천국의 실재를 믿는 바보의 믿음, 늦어버린 믿음, 소용없는 믿음의 구원밖에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을 본다. 은근슬쩍 자신이 어느 학교를 나온 수재인가를 자랑한다. 그러나 한가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 못하는 인생의 지식들, 그 자랑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정말 인생이 자랑해야 마땅할 예수님은 그저 뒷방 어르신 자리에 머물고 만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으로 답

르게 된다. 이런 때에, 자신의 무능을 아무리 부정해보고 몸부림쳐 보아도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힘있는 사람을 찾아서, 처세를 해보려 해도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빈 가슴 위에 채워지는 그 믿음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전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저들 간증의 출발점에 지극한 고난과 연약함, 무능함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삶의 일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만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세 살 때 의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간호사인 어머니는 병이 들어 병을 고치기 위해 집을 떠나셨다. 혈혈단신 조부모님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중등학교와 어린 시절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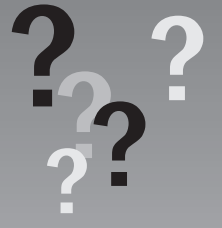
하면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요강을 두었는데, 그 요강을 들고 계단을 올라 바깥세상을 향해 갈 때마다, 출렁이는 물결(?)에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슬픈 이야기가 슬프지 않게 들린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이다.

예외 없는 한계와 무능

가을이 되면 더욱 마음이 예민해지는 분들을 본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한마디로, 너무 매일 필요가 없는 생각들이다. 신앙의 거인들조차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열왕기상에 보면 구약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이런 낙심에 빠져 있었다.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한마디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독백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도 한때 이런 낙심에 빠져 있었다. 시 42:11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고백을 읽게 된다. 더 나아가 사도바울조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오늘날 미국에서 공부하며 자란 젊은이들은 매사에 실용주의 철학 사상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실용주의란 무엇이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실용주의 사상의 위험성을 알고 싶습니다.
- 뉴욕에서 Kang

A: 실용주의 (pragmatism) 철학은 인본주의 철학 사상으로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가 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진리의 기준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유용성(usefulness)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용주의는 "유용성, 발전성, 민주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실용주의 철학은 계몽주의 철학에서 주장한 공리설의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의 문제나 궁극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한 질문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사상

존듀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가치관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교육에서 제거시키고 "인본주의 진화론, 상대적 가치관(Relativism) 등을 교육의 근본 이론으로 삼았습니다. 상대적 가치관은 각 문화권에 따라 궁극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다르다는 다원론(Pluralism)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미국인들은 "Good" 이란 말을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보다 실용적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Good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는 개념보다 "나의 계산에 들어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불필요한 노인은 본인이 얼마든지 모실 수 있음에도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거나 원치 않는 복종의 태아를 쉽게 유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실용주의적 철학이 매우 팽배합니다. 그 한 예로 계약 결혼, 실패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 보고 살만하면 그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선풍리 결혼하여 서로가 안 맞아 이혼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므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한번 동거해 보고 실험해 살아보고 관찰하면 그때 가서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결과가 좋으면 방법은 중요치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역들을 계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지극한 좌절을 경험한 후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찬가지다. 그의 사역목표는 아주 분명하다. "죽기밖에 더하겠나,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신념으로 목숨걸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싸우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왜 인간이 문을 닫아라, 말라 할 수가 있느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생명의해 일하신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다들아닌 어린 시절 삶의 좌절을 맞보고,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동시에 맛보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은,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기에, 목숨걸고 신앙 생활하고, 목숨걸고 목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환경 조건의 무능함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대목이 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힘을 축적해서 꽤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지치고 피곤하며 맥이 탁 풀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 가을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단풍잎의 화려함과 세월의 속절없음 앞에서 허무와 공허를 노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붙들려 열매 있는 인생, 주께 바쳐드릴 열매가 풍성한 가을을 노래해야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세상, 부족함의 축복 은혜의 영광

- 한계, 무능, 믿음 -

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 하나가 없으면, 인생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체력, 물질, 지식의 힘

예전에 자신의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던 한국의 대표적인 남자 배우가 있었다. 여든의 나이에도, 웃통을 벗어제끼 채 근육통을 자랑하던 것을 기억한다. 흰 백발을 휘날리며 그 잘생긴 얼굴을 드러낼 때는, 절로 감탄을 자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건강한 몸에도 하나님이 없으니,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내용물들은 듣고 보기에 안타까움을 주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젊은 날 부인 몰래 바람피운 이야기를 자랑거리 무용담처럼 부끄럼 없이 드러내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 쓰레기를 보고도 쓰레기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쉬운 인생의 아둔함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재력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다. 돈 자랑이다. 들어보면 엄청나다. 보통 사람은 꿈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많은 재력들도, 한 분 하나님이 주인됨을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 더욱 고급스러운 죄를 저지르며 자신을 망치는 오물과 같이 되는 것을 본다. 차라리 가난하여서 주님을 만났더라면, 영원한

을 쌓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색을 더한 저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리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저들 인생에 허락된 그 고귀한 지식은 오히려 배설물보다 못한 것이 될 따름이다.

좋은 힘,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힘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힘,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영력을 지닌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력과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온갖 좋은 힘을 주시게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죄인의 연약함에서 출발한 자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건강, 가정, 자녀, 인간관계 등의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놀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시험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무능을 확신하고 어깨가 처진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질병을 만나 고통스러울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진다. 가정생활에서 위기를 만나고,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는 엄습해오는 무력감에 몸뚱 바를 모

습을 두 마디의 말로 표현하셨다. "마리 숙이며 다니는 아이, 아무런 웃일 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사님이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부모님조차 예수를 안 믿는 그런 형편임에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세상의 결핍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함을 경험한 결과라는 간증이다. 비워진 만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뿐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어떤 목사님은 중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이 초가지붕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며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니 마을의 다른 집들은 기와 지붕을 얹고 있었다고 한다. 학교를 마치고, 소먹이로 나갔다가, 소를 잃어버리고 해가 어둑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소가 먼저 집을 찾아와 있더라는 이야기도 오으며 한다. 은혜가 임하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 어찌 보면 부모 원망하고 삶을 비관했을 이야기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같은 간증 스토리가 되더라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한 칸 방에 손님들을 불러 놓고 담배 연기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 때에 앉은뱅이 책상 밑에 얼굴만 집어넣고 신선한(?)공기를 호흡하며 잠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후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야 반지하에서 생활

도, 고후 1:8-9절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한계와 무능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낙심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괜찮다"고 먼저 인정하며 자신을 다독겨야 한다. 이렇게 원망스럽고,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어도, 그런 때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방향을 정해야 한다. 아무런 힘도 없고, 조건과 환경이 부족하여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실제, 인생의 무능함 속에 좌절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인생의 어려움을 더욱 귀한 양념처럼 사용해서, 걸작품 인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환경 속에 방황해보신 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본다. 이유는 훨씬 더 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 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앞에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도 40세까지 마약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동성애 반대부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아버지의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진실(眞實)과 진리(眞理)

살아있는 것들의 인연은 천연(天緣)이다.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

서서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상수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자 화를 내어...

살 중의 살이라면 그 남자가, 여자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 먹은 뒤 이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믿을 수 없음에도 또한 믿지 않을 수 없는 아이러니 때문에 인생은 고(苦)라고 한다.

지금쯤 그런 일이 거의 없으나(아쉽게도) 이전에는 영화를 보다가 필박을 받던 의(義)가 불의를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이들 속에도 선한 것을 알만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암울한 현재를 파고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다.

돈에 대해 심히 쪼들리며 잠조차 자지 못한 채 숨을 쉬는 것마저 버거워할 때 가까이 지내는 목사가 '돈이 없냐? 믿음 없지!'라는 말을 했다.

있는 것을 보고 급한 김에 나무 막대를 휘두르며 어찌어찌 발들을 쫓기는 했으나 그 와중에 말벌에게 내 곳을 쏘였다.

상실(喪失)의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흥망성쇠(興亡盛衰)로 변천하며 적아(敵我)의 구분이 모호하고 진실조차 진리가 되지 못하...

월은 세상의 희로애락을 보듬는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죄의 문제다.

이 세상 죄의 샅은 오직 사망이다. 이는 그 어떤 진실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잠시 잠깐 후면 변할 것이라 해도 지금 당장은 진실일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진실의 한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리가 주어졌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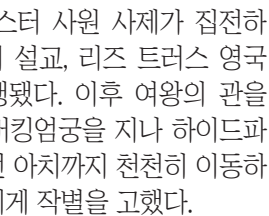
'굿바이 퀸' 장례식 염수, 남편 필립공 결영면

지난 70년간 영국 군주로 재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1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됐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은 이날 장례식 시작 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운구됐다. 왕위를 계승 받은 큰아들 찰스 3세 국왕 등이 운구 행렬에 동행했다.

장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가 집전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설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봉독으로 진행됐다.



장례 행렬이 웰링턴 아치에 도착하면 하이드파크에서 기마대가 예포를 발사한다. 이후 여왕의 관은 런던에 작별을 고하고 40km 떨어진 윈저성으로 떠난다.

여왕 장례식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 열렸다.



사원의 정식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세인트 피터 성당 참사회'(Collegiate Church of St. Peter in Westminster)이며 지금은 성공회 교회당이다.

설립 이후 역대 왕들의 대관식과 장례식 등 왕실의 역사적 행사들이 거행됐고 영국 왕과 위인들이 묻혔다.

1066년 정복왕 윌리엄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올렸으며 또한 이곳에 묻혀 있다.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교를 전했다. 리즈 트러스 총리도 메시지를 낭독한다.

장례식 후 여왕의 관은 12시 15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출발해 호스 가드 파レード 광장, 더 몰, 버킹엄 궁을 지나 오후 1시 웰링턴 아치에 도착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회 성당들 중에서도 가장 고교회파(전통과 의식을 강조)에 속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서쪽 문 위쪽 외벽 벽감에는 20세기에 순교한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 10인의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종교개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준 문서를 집대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원래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교도들의 교리적 통일과 유럽 내 개혁파 교회들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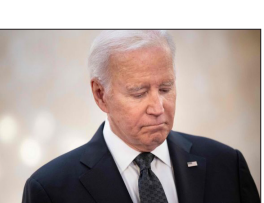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미국 장로교 역사 가운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 장로교 역사에도 교리적인 표준문서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합동 총회는 헌법 신조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母)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나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信徒摘要書)와, 성경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는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전 세계 교회 교단은 대요리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인 내용 때문에 예배와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바이든 "중, 대만 침공 시 방어할 것" 재선 출마 결정 일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CBS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서 중국이 침공할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오래전 약속한 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며 대만의 독립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 방송은 "백악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뷰 후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공식적으로 미국은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군 통수권자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협박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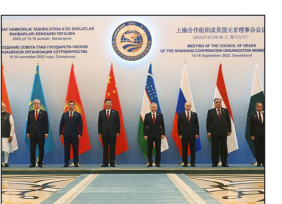
하는 것은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묻자 "절대, 절대, 절대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없었던 형태로 전쟁의 국면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내 의지는 다시 출마하는 것이지만 그건 의지일 뿐"이라며 "다시 출마하는 것이 확고한 결정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세 불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이란·튀르키예도 가입 추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세를 불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식 회원국이 된 데 이어 SCO의 대화 파트너인 튀르키예도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CO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우리와 회원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란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의무각서도 체결됐다.

2001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 회원국이 창설한 SCO는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중국어 정부는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중 하나로 미 포위망에 맞선 SCO 단결과 외연 확대를 꼽았다.

1. 성경에서 계시 된 삼위일체 교리

1)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위 (person)로만 존재하지 아니 하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형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라는 표현은 엄위하심을 나타내는 복수형 (plurals of majesty) 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할 때 왕이 스스로의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이다 (더욱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Gesenius의 Hebrew Grammer를 보라). 그러나 구약에서 자신을 가리켜 복수 명사 혹은 동사를 사용한 예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복수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창조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했고, 사람이 천사의 모양과 천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아니했다.

셋째,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이 복수형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체에 한위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고 계시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많이 나온다.

창 3:22, "여호와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 6:8,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 6:8에는 단수와 복수가 함께 사용되었다).

시편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거니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다윗은 두 분의 구별된 "주님"을 칭한다 (two separate persons as Lord).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 주)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 말씀이다 (마 22:41-46 참조). 다윗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에 복수형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사야 63: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 구절은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위격으로 계시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은 한 인격체로 감정적인 기능을 말한다.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주"가 구별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잠언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도다"

이 말씀은 창조시 하나님의 곁에 창조자로 계시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계시한다.

2) 신약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친다.

마 3: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이다."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 20-21,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고, 영광을 공유하신 것은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별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음을 알 수 있다.

2)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곳이 매우 많이 나온다. 창세기 1장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주장하

요 1:1-4은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

요 20:28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전한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다. 도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

히 1:8, "아들이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리고 10절에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리" 했다. 딤후 2:13,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했다.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칭한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성령 하나님)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차원에서 말한다.

행 5:3-4, "베드로가 이르되 야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며 환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

고전 2:10-11,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요 3:5-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교회)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 동등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

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성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신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 (person)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신약의 저자들은 주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을 "주"로 칭했다.

고전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로 계시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2.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1) 하나님은 구별된 삼위로 계시며; 2) 삼위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3)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1) 하나님은 구별된 3위로 계시다. 이것은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는 성령이 될 수 없으며, 삼위는 독립된 인격체이다는 말이다.

요 1:1-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 1장의 문맥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다는 의미이다. "함께 계시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한다. 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친다. (성자 하나님)

요 1:1-4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소개되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 (a god)"으로 번역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표기에 정관사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God)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a god)으로, 혹은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 증인의 해석을 지지하는 헬라어 학자는 없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문장의 주어 가 아니라,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 1:6, 12, 18에서는 정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a god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God으로 번역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교회', '뉴욕부르크리제일교회', etc.,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8-4. 죄를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

5) 방법5: 성품 속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피라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죄가 당신의 성품 속에 침투하여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체질로 정착하여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는지 살피라. 확실치 어떤 죄들은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무조건 죄를 자신의 기질 탓으로 돌리지 말라

우리의 성품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에 죄의 자양분이 자리

은 죄의 천성적인 뿌리를 억제하고, 죄의 기름진 토양을 제거하여 그것을 시들게 만든다.

가) 첫째, 자신의 몸을 외형적으로 손상시키고 약화시키는 행위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죄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타락한 성품의 분출을 막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다윗은 이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시 18:23).

죄의 상황들을 대수롭지 않

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8) 방법8-1: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1)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을 묵상하라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비해 너무나 동떨어진 당신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게 되고, 속에 거하는 죄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고 영혼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많이 생각하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깊이 묵상하라.

(2) 자신의 지식이 미천함을 묵상하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미천하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라. 이와 같은 성찰을 함으로써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은 그분의 영광스런 존재의 빛을 감당할 수 없다.

바울은 율법의 영광에 비교해서 복음의 빛의 영광을 높이 칭송하고, 지금 어두움을 일으켰던 수건이 사라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그분을 본다(고후 3:18). 거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지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바울은 “부분적으로” 즉 천국의 실체에 대해 오직 뒷부분만을 보았다고 말한다.

youns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9) 적합한 모임 장소는?

한부모들의 모임 장소로 어디가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질문에 흔히들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의 반 이상이 싱글인 만큼 교회서 장소랑 제공해 줄 테니 이 사역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싱글들의 본 교회, 곧 출석교회 싱글모임에의 참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코로나-19로 사용이 어려워질 때까지 교회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선 특별배려로 친교실 옆, 깔끔한 새신자방을 사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참석자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때론 장로님들도 들려서 환영 인사를 하였습니다. 끝날 무렵이면 전도사님께서 식사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곤 했으니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한번은 친교실에서 주일날 오후인 만큼 앉아 여유롭게 답소하시던 어느 권사님은 한 참석자를 보시곤 나중에 내게 놀란 표정과 함께 ‘아고 그 누구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이혼을 했는가?’ 물어오셨고요. 혹시나 조금 화려하게 복장을 한 여자분은 죄지은 양 서둘러 방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교인들의 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입구 근처의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혼을 주도했던 혹은 주도 당했던 것과 관계없이, 또 성경에서 가하다(민지 않는 배우자, 음란의 경우) 이혼을 했을지라도 이혼은 역시 사람들 앞에 떳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별로 혼자되신 분들 역시도 어떤 놀림을 호소합니다. ‘늦게까지 해로하는 부부들을 볼 때 왠지 위축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소가 적합할까요? 싱글들의 특성상 효과적인 장소는 가정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환영 인사도 불편하고 누군가 차려준 식사도 어렵고 그저 싱글들끼리 끓여 먹고 덤퍼 먹으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쉽고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치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식 끓이는 냄새가 나는 집에 대한 기억이 오랜 남자분들은 무슨 음식이 나오든지 감사하며 그것을 비울 뿐 아니라 팔 걷고 직접 특유의 음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저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담긴 모임에 삶의 무거움이 녹아든다고 할까요. 현재 늘어나는 참가자들로 좀 더 널찍한 장소를 위해 아파트나 콘도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의견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1,2부room 나누어 모이는 편이 낫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집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23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에서 보듯이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인도자님께서, 안락한 거처의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마음먹도록 기도하실 때 응답받으실 줄로 믿어집니다.

hyojungyoo2@yahoo.com

“죄가 뿌리내리기 전, 죄가 진행되기 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낫다”

를 잡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특정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성품 속에 정욕이 특정한 모습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분출로 인하여 당신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2) 죄의 성향은 사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당신에게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 그리고 부지런함이 없다면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확실하게 잡아 삼킬 것이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서둘러 지옥으로 떨어졌다.

(3)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을 복종시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고전 9:27). 몸을 복종시키는 행위는 죄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

말라 나) 둘째, 금식이나 철야기도와 같은 수단들이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수단들은 성령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 요약한다면 죄가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이나 성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죄의 천성적인 뿌리들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방법6: 죄에 대항하여 항상 깨어 있이라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마 13:37).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

계 여기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죄의 유혹의 모험에 빠져드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7) 방법7: 처음부터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죄가 당신의 마음 밭에 걸코 서지 못하도록 항거하라. 죄는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을 취한다. 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어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강바닥에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죄가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물줄기처럼 자신의 경로를 따라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 그러므로 분출된 죄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것을 원천봉쇄하는 일이 더 쉽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79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경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공부: 오전 8:00 대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2)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Fax: (410) 461-1237 3165 St. Johns Lane, Elk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예: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Fax: (508) 435-4579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목/토) 새벽예배: 오전 6:00(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Fax: (702) 79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29-9929 Fax: (702) 729-9929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산사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Fax: (501) 820-9049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예: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542-0288 Fax: (410) 542-9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화),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Fax: (703) 841-4447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 536-6675 Fax: (253) 536-667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한결같은

LA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곳에 미국 안에 스위스 같은 레포즈의 천국이라 불리는 맘모스 레이크가 있습니다. 하이킹, 송어 낚시, 산악자전거, 스키, 단풍, 온천 등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양지로 LA에서 가기에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느끼며 즐기는 가운데 휴식과 재충전을 가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가을에는 버드나무와 사시나무로 이

루어진 황금빛 단풍으로, 또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노천 온천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온천들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여러 노천 온천들 중에 핫크릭이라는 강물온천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발목이나 허리 정도의 깊이로 흐르는 강의 중간에서 솟아오르는 유황 온천물과 산속 계곡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려 오는 차가운 물과 중화되어 만들어진 강물온천입니다. 이곳에서 온천을 한 사람들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는 곳이 핫크릭 강물온천입니다. 교회 식구들과 단풍 구경을 하고 나서 핫크릭을 찾아 온천을 하던 중 미국인 부부가 10대 딸과 함께 온천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미국인 부부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어떻게 딸과 함께 핫크릭을 찾아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20년 전에 교제할 때 돌이켜서 맘모스 레이크로 여행을 왔었고 그때 핫크릭을 알게 되어 강물온천을 했던 추억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 마음 한편에서 혹시 자신들이 과거에 느꼈던 자연환경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약간의 걱정을 하며 왔는데 다행히도 변화 없이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한시를 놓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복한 경험을 딸과 함께 나누며 같은 추억을 만들기 바라는 미국인 부부의 작은 소망이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자연환경을 여간해서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로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옛 추억을 생각하며 찾아갔을 때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도와 또 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당혹감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받았던 감동된 사랑의 모습,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 도전받았던 섬김의 모습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나에게서 발견되고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거대한 세속화의 도전과 흐름 속에서도 변질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

앙과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동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의 사랑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신앙과 섬김과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기대와 달리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syrchurch@gmail.com

플러 신학교 신임 총장 임명...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플러신학대학원은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를 마크 래버튼 총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내년 1월부터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교직을 떠나는 고틀리 박사는, 선교와 신학대학원, 심리학 대학원 및 결혼과 가족치료학 석, 박사 과정에 매년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하는 플러 신학대학원을 이끄는 역할이 맡겨지기를 고대

하고 있다. 고틀리 박사는 "저는 주님께서 플러 신학대학원의 신학 교육과 소명 형성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저를 부르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플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저명한 전임자들의 뒤를 이어 플러의 6대 총장이 된 것은 큰 영광이다. 플러 신학대학원에게 혁신과 상상력은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며, 저는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새로

운 시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르게 되어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플러신학교에서 사역할 최초의 흑인 총장이다. 퇴임하는 마크 래버튼 총장은 작년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후임자가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틀리는 흑인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National Baptist Convention-USA에서 안수를 받은 그는 9년 동안 캔터키의 Black Baptist Church에서 목회했으며 그 후 20년 동안 역사적인 흑인 선교 기관인 Lott Carey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의 CEO로 지냈다. 고틀리 교수는 듀크신학교에서 재직 중 지난 2018년 '흑인 교회학부' 담당으로 플러 신학교에 왔다. 그는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20여년간 흑인선교단체인 롯 캐리 침례교 해외선교소사이어티(Lott Carey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에서 대표로 사역했다. 고틀리 교수는 내년 1월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연목회 세미나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연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세미나 열려

이임 장근성 목사, 취임 이영선 목사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이취임식 및 세미나가 19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열렸다. 김기대 목사 사회와 조후연 목사 기도로 열린 이취임식은 장근성 목사가 이임사 했으며 이영선 목사가 취임사 했다. 장근성 목사는 "연세동산에서 만나고 미국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말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연목회가 활성화되지 못했

다. 임원중심으로 연목회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연목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남가주지역 연목회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많은 선배들이 연목회를 감당해오셨는데 후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연목회 되었고 한다"고 말했다. 이 목회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연목회에 연대 목회자 동문외에 연대 일반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세미니

스터스(Yonsei Ministers)라는 비영리 단체 등록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의 건학정신은 기독교정신이다. 신앙에 기반했다. 연목회가 제대로 섬으로 동문 전체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하나될 수 있도록 남가주지역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연세동문회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는 "오는 11월6일 오후 4시 추수감사예배를 부에나파 교회에서 갖게 된다. 예배는 남가주총동문회와 함께 준비한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임기동안 수고한 장근성 목사와 조후연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김영대 목사가 축사했으며 연세찬가를 부른 뒤 마쳤다. 이어 '슬퍼함에서 회복과 기쁨으로'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굿네이버스 창립자이자 이사장 이일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계를 풍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어 김요섭 목사가 '팬데믹 이후의 목회진단: 병원 공인 채플링 역할과 기쁨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천진석 목사가 '환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플러신학교 신임 총장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라미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교회, 세계사망교회, 실비지사랑교회, 열매교회, 엘리스사역원,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임마누엘장로교회 아시안푸드페스티벌

뉴저지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10월 2일(주일) 오후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웃과 교제를 위한 아시안푸드페스티벌을 연다.

▲문의: 201-461-5055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영아부 사역자 청빙 (파트타임)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는 영아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파트타임 전도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자격요건: 정규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미국 거주 및 사역에 법적 문제 없는 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주일학교 사역경험이 있는 목회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족소개, 성장배경, 소명, 사역경험), 설교 동영상 파일 1편, 가족사진 1매, 합법적 미국 거주 입증 서류, 추천서 2부(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별도 요청 예정) 접수마감: 2022년 9월 30일(금) 서류제출: adminpastor@kcpc.org (이메일로만 서류제출 가능)

▲문의: 박상근 목사 513-568-1675

뉴저지 찬양교회 대학/청년부 교역자 청빙 (파트타임)

뉴저지 찬양교회에서 한어권 대학/청년부 담당교역자(Part Time)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자격요건: 정규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미국 거주 및 사역에 법적 문제 없는 자, 한국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며 한어권 대학/청년부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서류제출: jhlove91@gmail.com

▲문의: 이중희 목사 (202) 751-5867

뉴저지 갈보리교회 유초등부 사역자(1-5th grade) 청빙

뉴저지 East Brunswick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에서 유초등부(1-5학년)를 담당할 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자격요건: 정규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영어소통 및 설교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제출: ck-umc572@gmail.com 교회홈페이지: https://calvarykumc.com

▲문의: 이중희 목사 (202) 751-5867

뉴욕신광교회 사역자구함

뉴욕 신광교회에서 찬양사역 및 교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자격요건: 정규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한국어, 영어소통에 문제없는 분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가족소개, 성장배경, 소명, 사역경험, 신앙고백) 최근 1년 이내 찬양사역/설교영상(2편) - 유튜브 링크 추천인 2명의 이름과 연락처(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교회에서 요청 예정) 접수마감: 2022년 11월 까지,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예정

▲문의 및 접수: shinkwangchurch@gmail.com (이메일로만 문의/접수 가능)



2022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을 개최한 퀸즈한인교회 풍경

퀸즈한인교회, 2022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

어린이 중심으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 마련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을 9월 17일 토요일에 개최했다.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2019년에 뉴욕지역 한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어, 좋은 반응을 얻은 후에 매년 행사를 열어온 바 있다.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교회마당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를 준비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워터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푸드코트, 카페, 뮤직페스티벌, 페이스페인팅, 페인팅컨테스트, 타이다이, 가족사진관, 디저트 부스 등 다양한 부스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품추첨도 해 참가자들은 아이패드 등을 포함한 귀중한 상품도 받아갈 수 있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솜사탕, 팝콘, 커피, 음료 등 다양한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는 준비된 야외무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다양하게 분장한 교역자들이 준비한 단막극과 예배, 경품추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남노회 제23회 정기노회 회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81차 월례 조찬기도회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 및 준비위원회 모임 진행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지난 9월 15일(목) 오전 7시 30분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제81차 월례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장로연합회의 월례 기도회와 함께 10월 16일에 있는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와 준비위원회 모임을 함께 가졌다. 월례조찬기도회 예배는 최원호 장로(예배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김요한 장로(사기)의 기도, 이계훈 장로(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의 성경봉독, 김성국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무리중에서(느헤미야 7:1-2)"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중에서 뛰어난 자였던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 역시도 충성된 자로

서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며 장로와 담임 목사의 관계,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아닌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힘써서 건강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장로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설교 후 이어진 합심 기도에서 총무 이수주 장로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장로대학준비위원장 박용기 장로가 '퀸즈장로교회와 김성국 목사의 목회를 위해', 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가 '제9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황규복 장로의 회장 인사와 송정훈 장로(홍보 부회장)의 광고 후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조찬과 함께 행사계획 발표 및 협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가든노회 제91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제91회 정기노회

뉴욕제일장로교회 3인, 한남교회 1인 장로고시 허락 청원 통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의 제91회 정기노회가 9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인도 부노회장 허상희 목사, 기도 부회록서기 염현일 목사, 성경봉독 부서기 김지희 목사, 설교 노회장 이원호 목사, 성찬예식 집례 조성훈 목사, 축도 이종식 목사, 광고 서기 이준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는 "주의 재림이 지연되어 보이는 이유(베드로후서 3:8~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 홍성모, 곽승협, 권오준씨 등 3인 장로고시 허락 청원을 처리했다. 또 한남교회(이종식 목사) 김의규씨 장로고시 허락 청원을 통과시켰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회 제23회 정기노회

노회 이명 청원 허락 및 뉴욕센트럴교회 3인 장로고시 허락 청원 통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노회장 전현수 목사) 제23회 정기노회가 9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노회에는 목사회원 14명(신입 1명, 위임 2명)과 장로회원 2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는 사회 김재열 목사(전 노회장), 기도 조성희 목사(전 노회장), 성경봉독 이재덕 목사(전 노회장), 설교 전현수 목사, 성찬 집례 조영찬 목사(노회 서기), 축도 권영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전현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를 통해 마이클 차(차인규) 목사(뉴욕센트럴교회 EM 담당)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신학교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통하여 편목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노회원으로 받기로 했다. 또 이영록 목사의 필라델피아노회로의 이명 청원을 허락했다. 뉴욕센트럴교회 당회장 김재열 목사가 청원한 한상준, 김성문, 유성열 안수집사 3인의 장로고시 청원을 받기로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참석자들 단체사진 촬영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9회 정기총회

회장 한필상 목사, 부회장 박춘수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제39회 정기총회를 9월 13일(화) 오전에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 임원선거를 통해 부회장 한필상 목사(뉴욕안디옥침례교회)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은 박춘수 목사(뉴욕마하나임침례교회)를 선출했다. 또 총무 박춘수 목사(부회장 겸임), 회계 안승백 목사, 서기 최용석 목사 등 임원직을 갖추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신임 임원 모임을 통해 뽑도록 했다. 신임회장 한필상 목사는 "먼저 지방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39회기 동안 지방회가 침례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회기, 바나바의 권위가 회복되는 지방회가 되기를 바란다. 권면과 위로로 세워지는 지방회와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부 경건회는 인도 부회장 한필상 목사, 기도 박현준 목사(충성침례교회), 설교 이다니엘 목사(칼과스웰침례교회), 광고 총무 한필상 목사, 헌금 기도 및 축도 전 총회장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건회에서 이다니엘 목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진밀감(사도행전 16:1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다니엘 목사는 "먼저 몇 년 동안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는 회복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선교지인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기적인 기도 생활과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자"라고 했다. 2부 총회는 회장 신은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부사업이 보고됐다. 총무 보고(한필상 목사)를 통해 목회자 연금세미나, 사모위로회, 성탄 및 송년모임,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야외회, 청소년 수련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등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했다. 선교보고 보고(김레너드 목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지방회 소속 교회들이 \$12,150을 헌금하여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또 오른손구제선교회(안승백 목사)에도 사역지정헌금을 전달했다. 교육분과 보고(박현준 목사)를 통해 목회자 가족수양회가 8월 8일부터 2박3일간 파인브룩 수양관에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은철 목사가 강사로 섰다. 청소년분과 보고(박진하 목사)를 통해 청소년수양회가 7월 10일부터 3박4일 동안 파인브룩 수양관에서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고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9회 정기총회 단체사진 촬영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4기 개강예배 "달라진 분위기"

실버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불러주실 것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 제34기 개강예배가 9월 13일(화) 오후 8시 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에서 열렸다. 제34기 실버미션훈련은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월요일에서 매주 화요일로 요일을 바꾸어 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식사를 하며, 7시30분부터 50분씩 2번의 강의를 진행한다. 뉴욕실버미션학교 이사 중심으로 강의와 훈련이 같이 진행된다. 오랜만에 11월 1일에는 성령영성집회가 기도원에서 열리며, 종강 후에는 도미니카 단기선교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20주년을 앞두고 18년 만에 이사장 이종식 목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새로운 이사진들이 영입되고 이사들의 사무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여하여, 어느 개강예배보다 많은 신입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활기있게 개강예배가 진행됐다. 개강예배는 인도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대표기도 최은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실버미션학교의 스페셜티 선교단 양 이후에 이사장 이종식 목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사도행전 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종식 목사는 우리들은 해외선교만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증인 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선교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와서는 나태해지고 달라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라고 강조했다. 실버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신 곳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가슴이 뛰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다. 후원이사장 황달연 장로의 헌금기도 후에, 회장 김재열 목사가 환영인사를 했다. 김재열 목사는 "실버선교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이다. 아침에 동편에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서산에 뜨는 일몰이 세상을 황홀하게 만들일 수 있다. 속담에 늦게 타는 장정이 뜨겁다고 했다.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라"라며, 뉴욕실버미션교 출신으로 83세의 김경범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16개 교회를 개척한 것을 소개했다. 그리고 김재열 목사는 이사장 이종식 목사가 언급한 대로 해외선교만 아니라 뉴욕의 2백여 다민족 국내선교 등 해외와 국내 양면작전을 해 나가겠다고 앞으로 뉴욕실버미션교회의 사역 방향성을 밝혔다. 필그림선교부흥단(단장 최윤자)의 축무와 김영환 전도사의 축가, 사무총장 이형근 장로의 광고, 이사회 서기 이지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갈보리민음교회 임직식

“진리에 목숨 걸고 이 시대를 이기는 자 되라”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18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됐다. 이날 임직식은 강진웅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KPCA총회측 나성영락교회 장로임직식과 함께 열렸다.

강진웅 목사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방덕영 장로(나성영락교회 은퇴장로)가 기도했으며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KPCA 전총회장 목사(주남세운교회)가 ‘승리의 비결(출 17:8-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규 목사는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 교회는 군대처럼 강해야 하고 가정처럼 따뜻해야 한다”라며 “승리의 비결은 첫째 나 자신과 적을 알아야 한다. 둘째,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한다. 임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오늘 임직받은 자들은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

의 명령 따라 진리에 목숨 걸고 나아가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직예식이 열렸다. 임직예식은 임직자 소개, 임직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 유민에 집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이재광 목사(KPCA 전총회장, 할렐루야장로교회)가 권면, 한광호 장로(KPCA 전 부총회장, 그레이스교회)가 축사했으며 임직패 수여와 기념품 증정 시간을 가졌으며 가운 작복식을 가졌다. 이어 고길중, 한용배, 김현태 장로가 답사했다. 이날 임직식은 강진웅 목사 축도로 마쳤다. 임직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 갈보리민음교회 장로: 고길중, 한용배, 김현태, 안수집사: 이승철, 최솔로몬, 김준호, 권사: 이학분, 강샤인, 이정희, 유순자, 김키미, 나성영락교회 장로: 정영정, 김미진

(박준호 기자)



갈보리민음교회와 KPCA측 나성영락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받은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에서 이영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죽음은 소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고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14일(수)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남 목사 사회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임현철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서남부 지방회장)가 대표기도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가 특송했다. 이어 이영규 목사가 ‘영원한 안식(계 14: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규 목사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을 이르는 종착역으로 향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며 지상 최대의 손실이라고 한다. 가장 비참한 영원한 이별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 땅에 죽은 후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며 부족함 없는 부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받아 영육간에 보호받고 건강하게 잘살고 주님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조용기 목사와의 교제를 나누며 고인과의 일상을 회상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였다. 조 목사는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목회자에게 권면했고 실제로 실천했다. 조용기 목사는 늘 공부하는

목사였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봤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 추모영상이 소개되었다. 김충남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선교위원장)의 추모사를 진유철 목사가 대독했으며 고인의 순복음신학교 동기인 배중구 목사와 김판호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직전총회장)가 추모사를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순복음의 후예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지휘자 듀엣(최원현 지휘자와 정재혁 지휘자)이 특별 찬양을 했다. 이날 예배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드림교회 창립 44주년 가을부흥회

모세의 광야 40년, 갈대상자를 변화시키는 과정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창립 44주년 가을부흥회가 15일(목)부터 18일(주일)까지 김응용 목사(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6일(금) 둘째 날 저녁 집회는 박은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응용 목사가 ‘갈대상자의 변화(출 3:1-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응용 목사는 “예수님



우크라이나 승리기원 음악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왼쪽 위 원안은 이날 송정명 목사가 인사말 하는 모습

우크라이나 승리기원 음악회

모금액은 전쟁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것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승리기원 음악회가 18일(주일) 오후 5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진유철 목사 인사말과 스텔라 박 씨와 빅토리아 쿠지나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애국가와 우크라이나 국가 연주가 있었으며 맥심 쿠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코리안 우크라이나 얼라이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다. 이어 테너 최원현, 오우영, 메조 소프라노 아스야 고르스카, 바이올리스트 지아 신, 이리나 불로시나, 소프라노 이영주, 안나 벨라야, 마가리타 쿠지나, LA 울 앙상블, 소리꾼 김워렌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

했다. 맥심 쿠진 지휘자는 “1년 전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년 후인 올해 전쟁이 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한인커뮤니티가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와 연대해준 것 감사하다. 오늘 콘서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오늘 콘서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콘서트를 위해 모금된 금액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리토스장로교회 가을말씀집회에서 장성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가을말씀집회

“시험과 환란은 성도의 삶의 일부, 잘 통과해야..”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가을말씀집회가 ‘가르쳐주소서!’라는 주제로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장성철 목사(보스턴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18일(주일) 오전 9시 30분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규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예배는 김상훈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장성철 목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마 6:9-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성철 목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세상에서의 길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그 속에서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성공의 자리 부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이다. 환란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가 행복의 시간들”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시험과 환란은 성도의 삶의 일부이다. 따라서 시험을 잘 통과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유혹을 미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밀도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유혹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은 언제나 직면하게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목사 되신 주님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 유혹은 실제적인 것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박규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22 밀알의 밤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가 개최하는 ‘2022년 밀알의 밤’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걸그룹 ‘윈터걸스’의 리더이자 현재 ‘마미걸’ 멤버로 활동 중인 ‘선예(본명: 민선예)’ 사모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해 개최된다. 일정은 9월30일(금) 오후 7시30분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0월1일(토) 오후 7시 남가주세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10월2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이다.

▲ 문의: (562)229-0001

생명의전화 창립 24주년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24주년 감사예배가 10월 8일(토) 오후 4시30분 남가주세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구성전 분당에서 열린다.

▲ 문의: (213)480-0691

기쁜우리교회 ‘이웃과 함께 하는 한 가을 밤의 음악회’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가 10월 1일(토) 오후 7시, “이웃과 함께 하는 한 가을 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이영주, 알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베이스 이정옥, 피아노 김우경과 LA 챔버콰이어가 출연한다.

▲ 문의: (818)662-0400

오버플로잉교회 11주년 감사예배

오버플로잉교회(담임 김충만 목사) 창립 11주년 감사예배가 ‘일어나서 함께가자’라는 주제로 25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갖는다. 이날 가수 현진주 자매가 특별출연한다.

▲ 문의: (714)266-0268

김라니 목사 출판 감사예배

메시야 솔리스트 앙상블 이사장 김라니 목사의 저서 ‘이제는 부끄러 바람의 노래를’ 출판 감사예배가 30일(금)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갖는다.

▲ 문의: (714)213-3883



한미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박승호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미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성경에서 40은 준비와 인내의 시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소재한 한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지성 목사)가 창립 40주년 기념 2022 말씀 채우기 말씀잔치를 ‘성령님의 시내’라는 주제로 지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박승호 목사(오하이오주 United Theological 신학교 교수, 미 연합감리교회 치유와 축사 전문사역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11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말씀채우기 잔치에서 박승호 목사는 역대하와 시편을 인용해 ‘어떻게 모든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는가’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영적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감옥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임해 매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지성 담임목사는 “한미연합감리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는 ‘준비’를 의미한다”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영적 준비를 해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

에 들어갔으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사순절기 40일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즉 성경에서 40은 준비와 인내의 시간이다. 한미연합감리교회의 40년 역사 또한 영적으로 준비해온 40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미연합감리교회는 11일 오후 4시에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서는 본교회 2대 담임 이장규 목사의 축하메시지가 소개되었으며 4대 담임 한동수 목사가 축사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3대 담임 성철 목사가 축도했다. 지난 30년 이상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한 25명의 성도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이들의 헌신을 치하했다. 예배가 마친후 저녁 만찬과 함께 플랫 콰르텟과 피아노가 포함된 축하음악회를 열었다. 한미연합감리교회 주소는 4550 N. Carefree Circle, Colorado Springs, CO이며, 신앙상담 및 문의는 719-570-0300으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교를 마친 후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정영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드림교회 창립 44주년 가을부흥회에서 김응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신청’ 불허하라”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기존 판례 폐기·변경하려는 의도” 강력 반발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신청권’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2일 심리하기로 하자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성별 정정에 관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면 사법부의 입법 행위가 될 수 있고, 양성을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낸 ‘등록부정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쟁점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 있는지의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

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심리하기로 한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전환자가 결혼한 상태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모의 성별 정정이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는 그동안 동성혼 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이 과거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려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달라진 움직임은 2013년부터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예규 등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성별 정정 허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2020년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 등의 예규를 필수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이는 출생 당시 성을 기준으로 이뤄져 있는 가족관계, 병역제도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현출시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A씨 자녀의 인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성전환해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는 2012년생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미성년자가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성장 과정은 물론 성인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어린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가운 ‘대면 총회’ ...교단 정기총회 개막

현장투표 긴 줄이 돌아왔다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예장합동은 19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살롬·부흥’을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107회 총회를 시작했다. 첫 날은 선거를 통해 총회 임원회를 구성했다.

총대들은 권순웅 부총회장을 기립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했고 단독 출마한 임영식 장로 부총회장과 서기 고광석, 회록서기 한기영, 부회록서기 전승덕 목사, 회계 지동민 장로도 박수로 선임했다.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807표를 얻은 오 목사가 당선됐다. 부서기와 부회계도 선거를 통해 김한욱 목사와 김화중 장로가 각각 선출됐다.

선거는 올해부터 다시 수기로 전환됐다. 예장합동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자투표로 임원 선거를 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수기 투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주다산교회에서 투표 리허설도 가졌다.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총대들은 3개 기표소로 흩어져 투표했다. 지방선거처럼 기표지에 모든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어 한 번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지역 거점 교회에서 분산 총회를 열었던 예장합동은 올해 2020년 이후 첫 전면 대면 총회를 열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한 교단은 등록 전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를 확인했으며 예배에서 성만찬도 하지 않았다.

예장합동은 총회 기간 200여

개의 현의안을 다룬다. 현의안은 총회 산하 전국 노회들이 총회로 상정한 입법·토의 안건을 말한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과 관련한 7개 현의안과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 재구성안, 사무총장 폐지안, 살롬부흥운동본부 설치, 총회다음세대 목회부흥운동본부 독립 및 상설안 등을 다루게 된다.

예장합동 외에도 국내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예장백석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이날 총회를 개막했고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0일 개회한다.

예장백석은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제45회 총회를 열고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에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총회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의 리더십을 1년 더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예장백석은 선거 없이 후보추천위가 단수 후보를 정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권 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다.

장 총회장은 이번 회기부터 시작되는 45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설립 45주년을 맞이해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역사에 획을 긋는 기념사업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45주년 기념사업은 내년 1월 2~4일 목회자여성대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 백석인의 날, 4월 14일 역사관 개관, 5월 백석인 한마당과 개혁주의생명신학국제포럼, 7월 백석문화예술제와 ‘45주년 기념교회 건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역사 편찬과 45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논문집 출간, 기념선교대회, 기도성령운동전개, 글로벌인재 양성, 1만 교회 운동, 백석문화예술제, 다음세대 사업 등도 전개한 후 9월 9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로 대미를 장식한다.

제1·2 목사 부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김진범(하늘문교회) 이규환(부천 목양교회) 목사가 각각 입후보해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주동일 영안교회 장로가 확정됐다.

기침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11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코로나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일정을 축소했다. 개회 예배에선 직전 총회장인 박문수(디딤돌교회) 목사가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창 50:19-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고명진 총회장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1000만원의 구호 현금을 전달했다.

새벽기도 총진군의 귀환... 동탄시온교회, 3년 만에 재개

3주 일정... “영적 발전기 재개동”

오전 5시가 가까워지자 성도들의 발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교회 인근 도로에는 성도들의 차량 탓에 북새통을 이뤘고, 행사가 시작되자 교회 본당은 성도로 가득 찼다.

19일 이 같은 광경이 펼쳐진 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시온교회(하근수 목사)였다. 행사는 동탄시온교회가 매년 가을이면 3주간 개최하는 ‘새벽기도 총진군’이었다. 이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새벽기도 총진군은 교회 모든 성도가 참가하는 행사로 다음 달 9일까지 매일 새벽 열린다. 새벽기도 총진군은 동탄시온교회 부흥의 필자 역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행사가 시작된 1994

년만 하더라도 교회는 경기도 수원외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 성도들은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됐고 끈끈한 연대감이 생겨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실상 3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근수 목사는 “2020년엔 행사를 개최할 엄두를 낼 수 없었고 지난해엔 일주일간 약식으로 진행해야 했다”며 “성도 모두가 기다린 행사였다. 올해는 제대로 된 새벽기도 총진군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건 새벽기도 총진군의 주제는 ‘기적 인생’이다.



일상에서 허투루 넘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순간들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하 목사는 “특별한 일을 겪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 성도들은 피로감보다는 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의 ‘영적 발전기’가 다시 가동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방번개 확산 속도 신천지보다 빨라... 대책 급해”

“여교주를 하나님이라 믿어... 성경 버리고 교주 믿게끔 미혹”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한국교회에 신천지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가법게 여기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지금의 문제까지 커졌다. 현재 동방번개에 미혹되는 속도가 신천지 때보다 더 빠르다. 이단은 미리 알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동방번개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사진) 상록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에서 개최한 ‘동방번개 상담세미나’에서 강조한 말이다. 전능신교라고도 불리는 동방번개는 한국교회가 중국발 이단으로 규정된 전능하신하나님교회(교주 양상빈)를 일컫는다.

진 목사는 동방번개가 신천지처럼 기성교회에 침투하면서 정통교회 성도를 미혹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한국교회가 미리 대처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진 목사에 따르면 동방번개는 처음부터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지만 점점 “성경은 시대가 지난 책이다. 성경을 맹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며 사람들이 성경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이끈다.

진 목사는 “동방번개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일 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들은 이 시대는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 보며, 자신들의 교리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성경을 버리고 교주가 말하는 것을 믿게끔 이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두 차례나 ‘성육신’ 즉, 육체의 모습으로 온다거나 재림의 날 여성의 몸으로 온다는 예언이 없음에도 동방번개는 여자 교주 양상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동방번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현지 한인 유학생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랴오닝성 헤셴신학교 학장 피터 차 목사는 이날 “현재 한국에는 1000여명의 신도가 국내 난민법과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훈련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현지 사람들과 성도, 유학생에게 동방번개 교리를 포교해 큰 사회 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혼의 어머니” ... 성공회, 추모 기도회

호주 등 영연방 대사들 대거 참석, “깊은 신앙심 가졌던 분” 애도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나 안심하리라... 선행과 인자 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통합찬송가 437장)

18일 오후 서울 한복판에서 찬송가 ‘주 나의 목자 되시니’가 울려 퍼졌다. 지난 8일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로 70년간 통치했던 여왕을 추모하는 물결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었다.

대한성공회와 영연방 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은 이날 서해 중구 성공회주교좌교회 대성당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 기도회’를 함께 열었다.

기도회는 데이비드 윌시 영국성공회 신부의 부름으로 시작했다. 이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새찬송가 481장)를 합창했다. 영어 제목이 ‘아바이드 위드 미(Abide with me)’인 곡은 영어권 국가에서 각종 기념일마다 불리는 ‘국민 찬송’이기도 하다. 폴린 크룩스 주

한 영국대사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영연방 국가 대사들이 여왕의 업적을 소개하고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크룩스 대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리 모두의 군주, ‘영혼의 어머니’였다”며 “그는 현대 영국의 상징이었다. 그의 죽음에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외국인학교 학생 2명은 영국 시인 사이먼 아미티지의 시 ‘현화’를 낭독했다. 이후 여왕을 위해 기도하고 1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호 대한성공회 의장주교의 축도로 기도회는 마무리됐다. 기도회에는 크룩스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타마라 모후니 주한 캐나다대사대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 앤드루 야마네야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 등이 참석했다.

크룩스 대사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분이셨다”며 “찰스 3세 국왕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고 말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	---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창 (20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10-10 Prayer Movement

10-10 Prayer Movement! 만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 밤 10시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10분간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레이저 광선이 철판을 뚫는 것은 빛이 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갈라진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간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너무 독립적이고 분파적이어서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군대나 천주교가 힘이 있는 것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 세균의 도전, 끊임 없는 전쟁과 종족분쟁, 기근과 재난 등은 인간 세상에서 평화를 찾아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역할은 커져만 가고 세속주의와 물질문화는 우리 영혼들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 먹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단 말인가?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교파나 파송 단체를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 추종나열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 그 한 대안이 무엇인가? 동일 시간대에 공통의 주제

를 놓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다.

1. 정한 시간 기도의 성경적 근거

시 55:17, 단 6:10에서 추론해 보면 구약의 성도는 정규적인 기도시간이 하루에 세 번 있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으며(MK1:35) 또 습관을 좇

아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기 자들의 간계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다.

2. 유대인의 기도 전통

유대인은 4,2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흠여집을

어떤 장소이건 정결해야 하며 사람을 자극하는 향내나 냄새가 나지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슬람의 강성 원리

이슬람의 교세와 그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들의 강성 원리 중 하나는 하루 5번씩 정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도 생활은 그들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메카를 향해 지구촌의 모든 무슬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매일 때가 되면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리는 (Adhān) 아잔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 그러면 성인 무슬림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설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행동을 멈추고 기도 품이라도 잡아야 한다. 길게 횡으로 늘어서 함께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율법에 포로가 되어 있

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 육신의 소욕은 끝없이 편함을 추구 한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을 감게 된다. 이로써 규율없는 신앙 생활은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하지만 기도시간이 토착화되어 있다면 습관을 따라 참석하게 되고 새롭게 소생하기도 한다. 아무튼 오늘날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기도 생활이 없거나 있어도 무질서하다. 연합적이지 못하다. 위의 정통파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에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이다. 다행히도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이는 한국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참여자가 적어지고 그 열기도 식고 있다는 데 있다.

5. 매일 밤 열시에 합심기도를 통한 선교 도전

왜 10-10 Prayer movement인가? 이는 한 두 사람보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더 강

해 밤 10시에 10분간인가? 밤 10시에는 취침하기 전이며 마음에 부담이 없다. 또한 누구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다. 10분은 하루는 24=1,440분의1/100도 안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의 새벽기도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만 10-10 기도는 누구나 가능하다. 한 사람의 100보다 100사람의 한 보가 낫다.

맺는 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코로나 시대 이후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혁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도처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이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지구촌 구석구석 미치도록 대동단결해 흑암의 세력을 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도전하는 적 그리스도와 세속에 함몰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쉽고도 강력한 대응은 정한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매일 아침 새벽에 교회로 모이라 하면 극히 소수에 그칠 뿐이다. 전쟁에서 군사는 많을수록 좋다. 따라서 전임 사역자들은 경기장 스탠드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그라운드로 내려와 함께 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뒷짐 지고 앉아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레이저 광선이 두꺼운 철판을 뚫는 것처럼 연합기도를 통해 지상명령을 준행해 나갈 수 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경림을 향한 10-10 기도운동(Prayer Movement)이 들불처럼 퍼져 나가기를 소원한다.

jrson007@hanmail.net

레이저(Laser) 광선은 철판을 뚫는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쪼갬다. 정한 시간에 합심기도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수 있다.

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곳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NK22:39-42).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 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갈 새”라는 구절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관습에 익숙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니엘 역시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 그는 포로 신분의 총리로서 막중한 일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

면하며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들이 생존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지구촌 어디에 있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공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한다. 아침기도(샤하리트), 오후기도(민하), 저녁 혹은 밤기도(마아리브)이다. 그들은 신성한 기도시간을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

다. 누가 감히 이 기도 문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4. 기독교인의 기도생활 실상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구태여 행위적으로 규례에 묶일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경성케 하며 발전적으로 지탱케 해준 제도라면 자기 문화로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성 죄성으로 인하여 기

력한 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체적으로 기도하면 자기중심 기도를 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이 인종과 국가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 아마도 지옥문이 흔들릴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느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는 개체적이며 분산적으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2장 / 절기, 안식년 그리고 두 길(레 23-27장)

속죄일

속죄일은 양력으로는 10월 인 가을 절기로 7월 10일 날에 지켜졌습니다(레 16:29, 23:27). 대제사장만은 일년에 단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 두 염소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역시 속죄의 제물로 광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레 16:1-10).

대제사장은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레 16:15-19).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속죄하기를 마친 제사장은 제비 뽑아 ‘아사셀’로 준비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되면 미리 정한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습니다(레 16:20-23). 염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본토인 이든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속죄일에 드러진 속죄일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납하

1:29)으로 오셔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의 염소’도 되시고 아사셀로 광야로, 영문 밖으로(히 13:12) 보내지는 ‘광야의 염소’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루신 것입니다.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속죄일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니다(레 23:34).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레 23:40-42)을 기념한다 하여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곡간에 들이고 지킨다고 하여 ‘수장절’(출 23:16, 34:22)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요 14:1-3). 옛 언약에서의 처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새 언약에서의 처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1)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대한 안식의

그러면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 가족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해에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레 25:8-13).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이제 애굽의 생활 양식도 아니고 그들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레 25:14-17). 이전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레 25:18).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당하신 은혜로 돌보실 것입니다(신 11:14/을 2:23). 7년째 되는 해에 거둘 소출은 6년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3년동안 쓰게 하신다고 합니다. 8년째에는 가을이나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레 25:19-22).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증언입니다(신 8:1-10). hfamilyfa@gmail.com

이 세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시어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백성이 지은 죄’ 그리고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 모두가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 되어 빨 나팔을 불어 모두에게 알리고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레 25:9).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다(레 16:29-34, 23:26-32). 하나님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며 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레 16:29).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의 삶이 사함 받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양력으로는 10월 인 가을 절기로 7월 15일 날부터 7일간 지켜졌습니다(레 23:34).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야 합니다(레 23:39).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광야로 나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습

의 과거적 의미보다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삶을 다 사하시고 하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계 21:3, 4).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육적인 농사를 추수하여 곡간에 수장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농사를 다 짓고 하늘나라 곳간인 천국 창고에 들이실

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주인이 종들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먹고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 25:1-7).

그리고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여 49년이 되고 50년째 해는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인생의 행복 (삼상 1:1~8) 찬 453장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브닌나의 두 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은 당시 사사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며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생명이 없는 불

행한 삶을 사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돈 많은 바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소출 때문에 기뻐하며 평안하다(눅 12:19)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편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편안을 평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화 인생의 핵심 장소 (삼상 1:9~20) 찬 543장

한나는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찾아간 곳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주겠다고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고 한나를 꾸짖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핵심 장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찾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의 목적이 바뀝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민감함은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기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 제사장 엘리와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수 남다른 믿음으로 양육하는 한나 (삼상 1:19~28) 찬 575장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한 후에 한나는 임신했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그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했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사가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대조시키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골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말해도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양육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로 행하던 시골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말해도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양육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목 무엇으로 기뻐할까? (삼상 2:1~11) 찬 191장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삼상 2:1).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영원한 곳에 기쁨의 이유를 두어야 우리의 기쁨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금 큰 죄 (삼상 2:12~17) 찬 255장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쁩니다. 행실이 나쁜 이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had no regard for the LORD)'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에 때에 술에 갈고 리를 찢어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무조건 자기들의 몫으로 취하였고, 제물의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고기를 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오만과 교만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혹은 낮잡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뜻은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면, 주인으로서의 모든 결정 권한도 드러야 합니다.

토 민감해야 합니다 (삼상 3:1~4) 찬 267장

홉니와 비느하스와는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

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망은 사무엘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각 공동체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기독교교육 (1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2) - 성경공부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 중 교회의 본질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부릅니다. 기본 구성요소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회중이 규칙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보다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obert Raikes)는 일요일에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는 교사들을 고용하여 아이들에게 주로 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산수 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1785년 침례교 집사였던 윌리엄 폭스(William Fox)에 의해 주일학교협회(Sunday School Society)가 발족되었고, 그의 제안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성경공부입니다. 마태복음 28:18-20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와 선교 사역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사역에도 토대가 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여 시작된 주일학교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되어, 1811년 레이크스가 사망하던 해에는 약 40만 명이 주일학교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새로운 제자들에게 침(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세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공부 사역이 지상명령을 완성함을 보여줍니다.

1780년대 중반 감리교 평신도였던 윌리엄 엘리엇(William Elliott)이 레이크스의 모델에 따라 버지니아(Virginia)주에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후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이 주일학교를 개설함으로써 미국에서도 주일학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부모들조차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겨,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성경공부 사역이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은 성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쓰여진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D. L. 무디(Moody)는 1800년대 말 주일학교 사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원 봉사자들과 그들의 마차를 동원하여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모이들였고, 일리노이(Illinois)주 전역에 주일학교를 조직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일학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모든 교단에 있어 사역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을 일컬어 "미국 주일학교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 후 여러 교단에서 주일학교가 서서히 쇠퇴했지만, 침례교회들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주일학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주된 역할은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을 성경공부로 인도합니다. 둘째, 성경을 가르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섯째,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끕니다. 여섯째, 교회와 교단의 사역에 협조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일학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모든 교단에 있어 사역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을 일컬어 "미국 주일학교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 후 여러 교단에서 주일학교가 서서히 쇠퇴했지만, 침례교회들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주일학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주된 역할은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을 성경공부로 인도합니다. 둘째, 성경을 가르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섯째,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끕니다. 여섯째, 교회와 교단의 사역에 협조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권위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허락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 적용합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공부 사역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중시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게 되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 주일학교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교회당, 사무실, 가정집 등에서 지역별, 연령별, 또는 다른 공통점에 따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지도자가 충분하지 않아 단순한 친교모임으로 변질되는 소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아이들마저 산업현장으로 내몰려 일주일에 하루만 쉬 수 있었습니다. 1780년 글로스터(Gloucester)의 신문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던 로버트 레이크스

오늘날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중시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게 되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 주일학교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교회당, 사무실, 가정집 등에서 지역별, 연령별, 또는 다른 공통점에 따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지도자가 충분하지 않아 단순한 친교모임으로 변질되는 소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주일학교든 소그룹이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권위이고, 성경공부는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 1등상: \$500
- ▶ 2등상: \$300
- ▶ 3등상: \$150
- ▶ 장려상: 0명 - 상품
-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로회,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은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선교 펴기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모든 동역자님 가장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던 한해였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 오진으로 혼란이 있었고, 특히 아내와 저에게 건강으로 많이 어려웠던 해였지만, 반면에 큰딸 Rachel이 결혼을 하였고 둘째 Judy와 막내 Joseph도 결혼을 앞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8월에 저와 아내가 마나도에서 독감으로 2주 동안을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과 동역자님들의 사랑, 그리고 한분 한분의 기도의 중보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 기도의 힘을 입어 저희가 어떤 역경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매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이곳 마나도에서 감사하며 복음전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나도 소식
지난 7월에 저희는 5년 동안 정들었던 이웃과 작별하고 가까운 곳이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역하기 편한 공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그곳을 당분간 Acts

29 사역 센터와 주택으로 겸용할 예정입니다. Acts 29 Center에서는 매주 모여 제자 훈련과 예배, 기도회로 모이고 있으며 매주 있는 사역을 위해 훈련과 사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cts 29 Ministry Team 인도네시아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간다는 의미로 저희는 Acts 29 사역팀을 지난 2021년 4월에 창설하고 현재까지 매주 마나도 교회들과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사역 (어린이 사역, 장년 사역, 중보기도, 드라마, 워십댄스, 찬양과 말씀사역)을 통해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시키고 있으며 또한 현지교회에 필요한 훈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Makelelon이라는 시골 지역을 방문하여 오후에는 어린이 집회를 열고 저녁에는 연향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 어린이 사역이 시급한지라 지속적인 어린이 사역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으려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마칼레론 지역(마나도에서 2시간 거리)의 어린이 연합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도 이곳 마나도에 수포프 쓰레기 마을에 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끝나는 Acts 29 사역 제자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락 교회(Lolak) 건축과 마리리 교회(Mariri) 건축
현재 저희는 두 지역(Mariri,

Lolak)을 놓고 현지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락 지역은 70% 무슬림 지역으로 앞으로 무슬림 선교의 발판으로 선교에 비전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로락교회 담임 목회자 하리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에서 유명한 전경 멤버로서 2015년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고 로락 지역으로 30명 정도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회를 세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부지를 두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리 교회는 60명 정도의 성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많은 나무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교회 빌딩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무슬림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회로 목사님의 소중한 헌신과 열정이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마리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에 감동을 받으며 무너질 것 같은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 건축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선교학교 (Hosanna Mission School) 사역
저는 현재 호산나 선교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며 그들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교 스텝 트레이닝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선교학교에 필요한 냉장과 냉동고를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호산나 선교학교는 저희와 협력하여 45명 이상의 현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현재 호산나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Ande & Widi (무슬림 사역) 선교사 부부와 Glen & Wita (교회 목회) 선교사 부부를 Acts 29 사역팀이 협력하며 기도하고 재정적 후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저와 현지교회 호니 목사님, 두 사람의 멘토십으로 현지교회 목사님들의 리더십으로(살몬 목사, 히스키아 목사, 프리스카

전도사) 마나도 영어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전략적 위치에 있는 무노라 교회(호니 담임목사)를 무료로 임대해서 매주 오후 3시에 마나도에 있는 외국인들과 영어권 대상으로 선교 전략적 비전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가족 소식
이혜정 선교사는 혈소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일 키모약을 복용해야 해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큰딸(Rachel)이 작년 8월에 결혼하고 둘째 딸(Judy)이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Joseph은 2023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저희를 위해 물질 양면으로 섬겨주시고 기도도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동역자님들 가장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

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제목 :
1. Acts 29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되고 많은 젊은이가 선교에 동원되도록... Acts 29 제자훈련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2. 호산나 선교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솔라웨시의 많은 미전도종족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복음화되도록
3. Manado English Service (MES)를 통해 마나도에 거주하는 영어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들을 선교에 동원케 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4. 자녀들을 위한 기도: Rachel & Whitt (버지니아에 거주), Judy (11월에 결혼, LA 거주), Joseph (Talbot 신학원, 2023년 결혼 예정)
마나도에서 이성철, 이혜정 선교사 올립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국가명 서남아시아 A국
▲ 종족명 P족
▲ 인구 약 50만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오픈된 교회는 없음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현지 문해 교육프로그램 교
사로서 3개월마다 진행되는 교사 재교육(문자화된 P어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
▲ 기도제목
1. 복음의 소식이 속히 들려지도록
2. 종교적 급진주의가 백성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3. 국제단체와 사역해 온 현지인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신
변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4. 신변 안전의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교회가 생겨나고 성경번역이 시작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5. 교육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그 땅이 다시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지 않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청빙공고

(교구담당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여자전도사, 드럼 연주자)

캘리포니아 부에나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여자전도사, 찬양대 파트타임 드럼 연주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 1. 자격요건
a.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b.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c.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2. 담당 사역
a. 교구 담당 및 교회 전반의 사역
3. 제출 서류
a. 이력서(사진 포함)
b. 자기소개서
(신앙배경, 신앙간증, 은사, 정단점, 사역철학, 가족소개 등)
c.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d. 추천서 2부
e. 최근 6개월 내 본인 설교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여자전도사

- 1. 자격요건
a. 정규 신학을 마치신 분
b.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c. 교구 및 심방의 5년 이상 사역 경험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a. 이력서(사진 포함)
b.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은사, 사역철학, 심방 및 교구 사역 경험, 앞으로의 사역각오, 가족소개)
c. 최종학력 증명서

파트타임 찬양대 드럼 연주자

- 1. 사역 일정
주일 예배: 1부(7:30), 2부(9:30), 3부(11:30)의 예배 반주(협의 가능)
금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예배 반주 등
2. 제출 서류
a. 자기소개서
b. 신앙고백서

<서류 제출>
kogh@thanksgivingchurch.com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주시고, 서류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청빙 절차 면접은 지원 마감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마감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교회 웹사이트: www.Thanksgivingchurch.com
교회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담당자: 고귀한 목사 (714-521-0991)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21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며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 분.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0명: 각 \$1,500

제출서류

- 1. 신청서(본교회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ewlife-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만 받으며 이메일(newlifechurchscholarship@gmail.com)제출 바랍니다

응모마감

2022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22년 12월 11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수여식

2022년 12월 25일 주일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를 참조하시고, 이메일(newlifechurchscholarship@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847-359-5200 F. 847-359-8409
www.newlife-chicago.org

현장스케치

2022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One Kingdom, One Church" 성료

팬데믹 이후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조용히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조해 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청소년 집회와 다음 세대의 예배 현상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 까? 라는 질문을 품고 참석한 '2022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현장을 소개한다.

2022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과 AYC(Asian Youth Center) 뉴욕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 주최로 지난 9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강사로 초청된 존 리 강도사는 "One Kingdom, One Church (고린도전서 1:10)"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으며, 진지한 모습으로 찬양에 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리 삶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삶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강사인 존

년 할렐루야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팬데믹 이후 많은 청소년의 교회 출석과 참여가 침체 된 가운데 '이번 대회의 참석자 제한이 풀리긴 했지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식사 제공 및 모든 청소년 참석자들에게 간식 구디백을 준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연합해야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나의 교회임을 나누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호스트한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 대회 강사로 초빙되어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비전을 심겨준 존 리 강도사는 NYU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탈북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Remnant 교회를 섬기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스태프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와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상 기자)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모든 제한이 풀린 청소년 집회 "젊은 세대의 불안과 걱정의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존 리 강도사는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둘째 날 설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피하는 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소중한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

리 강도사는 설교 가운데 자신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불안과 근심, 상처들의 경험을 나누며 "이 모든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과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회망의 메시지를 전해 청소년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대를 구성했다.

대회 첫날 축도는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가 했으며, 둘째 날은 청소년센터 대표 최호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집회의 순서를 마쳤다.

행사를 주최한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이번 청소년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450여 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하여 찬양과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

준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 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유태상 목사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One Kingdom One Church'의 의미는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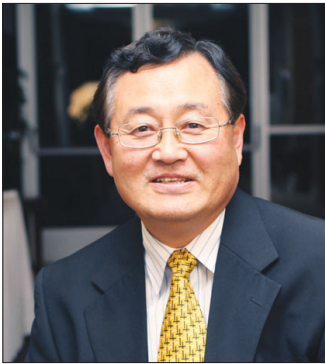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앞두고...

강순영목사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위원장)

미국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렸고, 우리의 자녀들이자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들이 교육받고 준비되는 공립학교와 대학들을 장악해 버렸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공립학교(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의 성교육은 도를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을 거부하고 성전환으로까지 유도하고 있으며, 비판적 인종이론 같은 잘못된 이념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교수들의 무신

론적이고 사회주의적 교육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몇년을 방치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타락한 마음과 가치관으로 오염될 것이 뻔하다. 연방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집권당은 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당론으로 낙태를 지지하고 있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의 첫걸음인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지지하여 동성애지지, 낙태지지, 대마초 판매 허용에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비상 간섭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나님



강순영 목사

함께 모여 금식하며 마음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2011년에 파사데나에 소재한 ROSE BOWL 에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사모하는 중보기도단체 250개 팀이 연합하여 준비했었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2015년 부터는 한기홍목사와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대규모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2015-2016년에는 Anaheim Convention Center 에서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2017년 부터는 은혜한인교회에서 모여오고 있

을 초청해 대규모의 연합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년에도 미주복음방송과 CTS America 외 다국적 TV가 생중계를 하게 된다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한인, 히스패닉, 백인, 흑인, 유대인, 월남인, 일본인,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동참해 기도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한인팀, 히스패닉팀, 백인팀, 기타연합팀에게 각각 30분씩 창의적으로 도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도록 시간을 배려할 예정이다. 통역도 있지만 영어가 많이 사용되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의미깊은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동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영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10월2일 주일 오후4시 은혜한인교회, 우리 모두 다민족연합기도대회로 모여 비상하게 기도합시다

의 비상 간섭으로 영적 대각성이 반드시 일어나야할 위기 상황이다.

요엘서 2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회를 선포하고 모두

다. 대회 당일엔 미주성시화운동 중심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포함해 다민족들이 2만명 가까이 모여서 미국의 부흥과

다. 지난 2년간은 팬데믹으로 인해 소규모로 모이고 방송과 TV 중계로 모임을 계속 이어오다가 금년에 다시 많은 다민족

2023년도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여대상

Table with 2 columns: 대상 (대상) and 인원 (인원). Rows include 밀알장학생 (00명), 꿈나무장학생 (00명), 근로복지생 (0명).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액

Table with 2 columns: 대상 (대상) and 금액 (금액). Rows include 밀알장학생 (1인당 \$3,600.00),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신청마감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발표 2022년 12월 30일(금) 개별통보함
수여식 2023년 1월 16일(월)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 Website: www.milalsca.org



*2022년에는 84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총 \$104,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 2,748, 200입니다.